

유기농버섯 시장현황 조사 (미국, 호주, 독일)

1. 시장현황

- 건강식품의 대표 식재료로 인기
 - 버섯은 항암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‘슈퍼푸드’ 중 하나로, 전 세계적으로 채식주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육류를 대체하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음
- 유기농버섯 수요 확대
 -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식품 및 버섯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버섯으로 제조한 유기농 가공식품의 생산과 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짐
 - (미국) 유기농버섯 생산량은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데, 2016년에는 전체 버섯 생산량의 11.2%가 유기농인증을 취득함
 - (호주) 유기농으로 생산한 버섯은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됨
 - (독일)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, 고가에 속하는 버섯 일수록 유기농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음

2. 소비규모 및 소비트렌드

□ 미국

- 2015년 미국의 1인당 버섯 소비량은 1.36kg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
 - 미국에서 식용버섯은 신선버섯 형태의 소비가 일반적이며, 버섯 조리방법은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다양함
 - 가장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버섯은 주름버섯속(Agaricus)에 해당하는 양송이버섯임
 - 최근에는 특수버섯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, 미국 농업통계국(NASS)에 따르면 2016년 특수버섯 판매량은 2015년 대비 약 3.9% 증가한 9,618만 달러(한화 약 1,089억 2천만 원)를 기록

□ 호주

- 호주 1인당 버섯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
 - 2016년 기준 호주의 1인당 버섯소비량은 3.64kg으로, 미국과 독일에 비해 2~3배 많은 수준의 소비가 이루어짐
 -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생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는 신선버섯에 집중
 - 호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종은 양송이버섯이며, 이 외에도 다양한 버섯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 외래종 버섯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편임

□ 독일

- 2015년 독일의 1인당 버섯 소비량은 1.7kg으로 2011년보다 소폭 감소함
 - 버섯은 2016년 독일의 ‘식용식물 1인당 소비량’ 10위로 주요소비 작물임
 - 독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품종은 흰색 및 갈색 양송이버섯으로, 특히 양송이버섯의 소비는 전체 버섯 소비량의 90%를 차지
 - 독일 소비자들은 자국산 신선버섯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나, 자급력이 낮아 소비량의 절반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음
 - 독일 버섯재배연합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고, 건강을 위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고연령 소비자들일수록 고가의 버섯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음

3. 유기농인증 취득방법 및 절차

□ 미국 USDA 유기농인증

- 미국 농무부(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)에서 국내산·수입산에 관계없이 발급하는 표준인증으로, 약 3년 이상 제초제, 비료 등 화학적 금지성분 사용이력이 없는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에 부여

<미국 유기농버섯 생산기준>

-
- 버섯의 생산 및 수확 전 과정에서 금지물질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함
 - 비산염 및 기타 금지물질로 처리된 목재 사용이 금지됨
 - 유기적으로 생산된 종균(spawn)을 사용해야 하며, 다만 비 상업적인 용도일 경우 유기적으로 생산되지는 않았으나, 금지물질이나 유전자변형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이 가능함
 - 버섯배지에 사용되는 퇴비는 미국 유기농 기준에 관한 연방법 「CFR 205.203」의 규정을 따라야 함
 - 살균제 및 소독제에 관한 국가 목록(National List)에 없는 것은 사용이 금지됨
-
- USDA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‘유기농’ 단어 사용이 불가함
 - 단, 유기농산물로 얻는 수입이 연 5천 달러(한화 약 566만원) 미만이라면 USDA의 유기농 생산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인 경우, 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‘유기농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

□ 호주 ACO(Australian Certified Organic)

- 호주유기농협회에서 유기농산물 및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
- ACO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농장은 경작지의 5% 이상을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며, 제품의 원료와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과 유전자변형물질(GMO)을 사용할 수 없음
- 농산물이 유기농인증을 완전히 취득하기까지는 최소 36개월이 소요되며, 유기농생산 첫 해부터 36개월이 지나기까지는 ‘유기전환 인증(In Conversion)’ 상태로 유지됨

〈호주 유기농버섯 생산기준〉

- 버섯생산에 사용되는 퇴비와 배지의 원료는 모두 유기농이어야 하며, 그러한 사실이 문서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함
- 생산 전 퇴비를 섭씨 65℃ 이상으로 저온살균을 거쳐야 함
- 출하 전 최종 증기살균을 할 수 있으나 이 때 장비는 세척한 후 사용해야 함
- 반드시 인증된 곳에서만 나온 균사를 사용해야 함
- 유전자변형(GMO) 제품의 사용과 공정은 절대 불가함

- 유기농 라벨을 부착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자발적 표기기준 「AS 6000-2009」에 따라 제품이 유기농임을 표기할 수 있으나, 필요 시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

□ 유럽연합 Euro Leaf

-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생산되거나 가공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
- 유기농 농업경작이나 제품 제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EU 회원국의 인가를 받은 인증 시험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, 농장의 경우 최소 2년 동안 유기농 농지로의 전환기를 거쳐 경작한 후 유기농 제품으로서 판매가 가능함
- 유럽의 유기농업 기준에서는 화학농약, 합성비료, 항생제,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사용이 금지됨

〈유럽연합 유기농버섯 배지 기준〉

- 퇴비 및 동물 배설물
 - 유기농 생산방식에 따라 경작된 토지
 - 그밖의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작물
 - 화학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탄(peat)
 - 벌목 후 화학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목재
- 농산물의 경우 유럽의 유기농인증 마크는 유기농으로 생산된 작물에만 허용되며 가공식품은 구성비의 95% 이상이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에만 허용됨
 - Euro Leaf 로고 옆에는 인증기관의 코드번호와 원재료의 생산지를 기재해야 함

4. 유기농인증 취득사례

□ 미국 USDA 인증취득 사례

○ 호쿠토社

- 2006년 최초로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USDA 유기농인증 취득을 준비하였으며, 3년간의 유기농 경작지 전환기를 거쳐 2009년부터 유기농버섯을 생산 및 판매함
- 주요 판매 품종은 느티만가닥버섯, 부나피버섯, 새송이버섯, 잎새버섯 등 4종임

○ 하이라인社

- 2016년 9월 유기농버섯 생산을 확대하고자 캐나다의 유기농 버섯재배 농장인 All Seasons Mushrooms社를 인수하여 현재 양송이버섯, 포타벨라버섯, 미니포타벨라버섯 등 3개 품종의 유기농인증을 취득함

○ 몬터레이社

- 양송이버섯, 크레미니버섯, 포타벨라버섯과 같은 전통 버섯 외에도 새송이버섯, 팽이버섯, 잎새버섯 등 6종의 아시아계 버섯을 유기농으로 생산하고 있음
- 유기농버섯 배지는 계분(chicken manure)을 비롯해 유기농성분으로 이루어진 퇴비를 이용함

□ 호주 ACO 인증취득 사례

○ 베닐라 버섯농장

- 호주 소비자들의 유기농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여 유기농버섯을 취득한 대표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음
- 유기농법으로 연간 100톤 이상의 버섯을 생산할 정도로 대규모로 운영됨

□ 유럽연합 Euro Leaf 인증취득 사례

○ 필츠란트社

- 독일 내 10개 지역에서 버섯 생산공장을 운영하며 주당 300톤 이상의 버섯을 출하
- 인증을 취득한 버섯은 흰색 양송이버섯, 갈색 양송이버섯 등 2종임

○ 비오필체오프社

- 유기농인증 취득한 버섯배지를 구입하여 생산하고 있는데, 버섯생산 공장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항온 항습실에서 버섯을 재배함

□ 한국산 버섯 해외 유기농인증 취득사례

○ 미국 USDA 유기농인증 취득 Y社

- 2016년 미국 USDA 유기농인증을 취득한 Y社는 미국 USDA 인증을 받은 버섯배지를 이용하여 버섯을 재배함
- Y社는 미국 농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식 인증대행 기관이자 한국에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C社를 통해 유기농 생산 및 인증취득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관리를 위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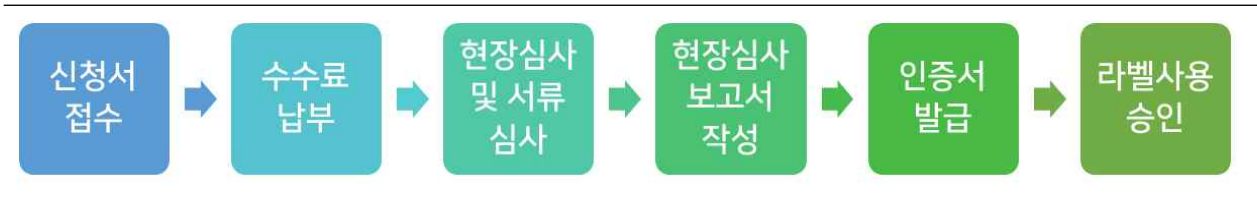
○ 미국 USDA 유기농인증, EU 유기농인증 취득 J社

- USDA 유기농인증과 Euro Leaf 인증을 취득한 J社는 무농약 참나무에서 원목재배를 통해 표고버섯을 재배함
- 미국과 영국으로 버섯을 수출하고 있는 J社는 일정한 물량의 유기농버섯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이어의 주요 구매기준이라고 강조함
- 유기농인증 버섯의 품질을 강조하여 높은 선호도를 확보하였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양의 물량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수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

5. 국내 유기농인증 대행정보

□ 유기농인증 대행절차

<국내소재 기관을 통한 해외 유기농인증 취득절차>



□ 유기농인증 대행기관 목록

	인증기관명	소재지	국가
1	(주)컨트롤유니온코리아	서울 성동구	미국, 유럽
2	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	서울 광진구	미국, 유럽, 호주
3	(주)오씨케이	서울 송파구	미국, 유럽, 호주
4	(유)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	강원 원주시	미국, 유럽, 호주
5	건국에코써트인증원(주)	충북 충주시	미국, 유럽, 호주
6	(주)에코리더스인증원	서울 강남구	미국